



5일 오전 서울 목동운동장에서 열린 아우디 유소년 축구 클럽에서 핼 베어벡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클럽에 참가한 아이들과 준비운동을 하고 있다. /연협뉴스

베어벡 “젊은 선수들 더 뽑겠다”

“다음엔 새 얼굴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핼 베어벡 축구 국가대표 겸 올림픽대표 감독이 오는 14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2008 베이징올림픽 아시아 2차 예선 원정 경기를 앞두고 새로운 선수를 뽑겠다고 공약했다.

베어벡은 5일 양천구 목동운동장에서 아우디코리아가 주최한 유소년 축구 클럽에 참가한 뒤 가진 인터뷰에서 “대표팀에 부상 선수가 몇 명 있어 새 선수를 발탁하기로 했다”며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젊은 선수를 뽑겠다. 새 올림픽대표 명단은

14일 UAE와 올림픽 지역에선 대비 전략 밝혀

콘 발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승리에 대한 팬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 UAE전이 어려운 경기라 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지난 3일 개막한 프로축구 K-리그에 대해서는 “모든 경기에 많은 팬들이 모였다. 좋은 출발이었다”면서 “그래도 더 많은 관중이 경기장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베어벡은 3일 성남과 전남의 개막전이

열린 분당 탄천종합운동장을 찾았다. 7년 만에 K-리그에 복귀한 안정환(수원)의 플레이를 평가해 달라라는 질문에는 “안정환과 박주영(FC서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베어벡은 이날 유소년 꿈나무들에게 축구 기본기를 가르친 뒤 “정말 재미있었다. 어린이들이 재능을 갖고 있다는 걸 느꼈다. 나도 즐거웠다”고 웃음을 지었다.

베어벡 감독은 암선 고트비 대표팀 코치와 눈발이 흠날리는 쌀쌀한 날씨 속에 서울·경기지역 초등학생 50여명에게 패스, 드리블, 슈팅을 가르치고 미니게임을 하는 등 3시간 가량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한편 핼 베어벡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대표팀은 8일 오후 1시 광주 NFC(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 소집해 이를 훈련한 뒤 9일 밤 11시30분 대한항공 KE951편으로 출국한다. 올림픽호는 14일 오후 7시(현지시간) UAE 아부다비에서 UAE와 맞붙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K-리그로 컴백... ‘빅 5’ 컨디션은?

안정환 ‘아직 정비중’

김진규 ‘업그레이드’

현영민 ‘옛기량 여전’

김동현 ‘고전속 적응’

고종수 ‘5월쯤 출전’



〈안정환〉

경남FC와 홈 개막전에서 안정적인 수비와 예리한 공격 부담 능력을 보여줬다. 전반 9분 유경렬의 선제골도 그의 발끝에서 시작됐다.



〈김진규〉



〈현영민〉



〈김동현〉



〈고종수〉

원족 폴백으로 나선 현영민이 울려준 크로스를 이적생 우성용이 머리로 떨어뜨려주고 유경렬이 마무리했다. 현영민은 첫 경기부터 폴백임을 뛰기에는 부담스럽다고 판단한 김정환 감독의 배려로 후반 임우환과 교체아웃됐다.

▲김동현=포르투갈과 러시아 리그를 경험하고 돌아온 ‘한국판 비에리’.

김학범 성남 감독은 3일 전남과 개막전 직전 “왜 김동현을 선발 출전시켰는지 지켜보면 알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다. 볼 터치가 길어 끈끈한 전남 수비수들에게 자주 공을 넘겨줬고 한 차례 때린 슈팅마저 수비수에 막혔다. 전남 내내 답답한 흐름이 계속되자 후반에 이따미와 교체됐다.

▲고종수=빅5 중 유일하게 선을 보이지 못했다. 수술을 받았던 무릎 부위에 이상 소견이 보여 조심스럽다. 겨울 훈련에서 체중 5kg을 빼고 질처부심했지만 곧바로 실전에 투입될만한 몸 상태는 아니다. 고종수의 컴백 시기가 이번 달이 되는지 어려울 전망이다. 늦어질 경우 5월쯤에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다.

프로축구 개막과 함께 팬들의 시선은 안정환(32·수원), 김진규(22·전남), 김동현(24·성남), 현영민(28·울산), 고종수(29·대전) 등 각자 다른 길을 걷다 K-리그의 품에 돌아온 ‘빅 5’의 활약에 쫓겼다. 고종수는 몸이 덜 만들어져 출전을 미뤘다. 평가는 엇갈렸다. 김진규, 현영민이 합격점을 받은 반면 안정환, 김동현은 적응 시간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김진규=스스로 2004년에 뛰던 시절과는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3일 개막전에서 전남 수비진은 김진규의 진두지휘 아래 K-리그 최강으로 손색없는 성남의 공격 역봉을 꺾었다. 첫 경기에서 의욕이 지나쳐 최성국(성남)을 박스 안에서 넘어뜨리는 바람에 페널티킥을 내렸지만 전매특허인 캐닝 프리킥도 한 차례 선보이며 상대적으로 부실한 전남의 공격진에 힘을 보탤다. ▲안정환=4일 대전과 홈 개막전에 예상보다 늦고 선발 출전했다. 용병 나드손, 에두의 바로 뒤에서 새도 스트라이커로 뛰어다녔지만, 자구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나타났다. 아직 위치 선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 6개월 무적(無籍) 생활 탓에 무더진 실전 감각을 단 번에 끌어올리기는 힘들었던 모양이다. ▲현영민=러시아리그 제니트의 코리안 삼총사 만행으로 활약하다 2년 만에 복귀했다. K-리그 113경기째를 뽐내 배테랑답게 4일

한국 청소년 축구 폴란드와 ‘예비고사’

수원컵 국제대회 23일 개막... 25일 맞대결

오는 6월 말 캐나다에서 열린 20세 이하(U-20) 국제축구연맹(FIFA) 세계청소년대회에서 ‘죽음의 조’에 속한 청소년축구대표팀이 오는 25일 수원에서 본선 상대 폴란드와 미리 예비고사를 치른다. 수원시는 한국과 폴란드(이상 D조), 칠레(A조), 캄보디아(C조) 등 세계청소년대회 본선 진출팀 4개국이 참가하는 2007 수원컵 국제청소년축구대회를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발표했다. 김용서 수원시장은 정문로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4개국 베스트

멤버들이 출전한 가운데 ‘미리 보는 세계청소년대회’를 축구도시 수원에서 연다”고 말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 대회는 4개국이 폴리를 벌여 우승팀에 상금 6만달러를 준다. 한국은 23일 캄보디아, 25일 폴란드, 27일 칠레와 각각 맞붙는다. 조동현 감독이 이끄는 청소년대표팀은 6월 30일~7월 22일 캐나다 6개 도시에서 열리는 세계청소년대회에서 브라질, 폴란드, 미국과 조별리그를 벌인다. 조 감독은 “본선에서 맞붙게 될 폴란드를

피하기보다 미리 맞보게 보는 게 좋다. 예비시합으로 여기겠다”며 “브라질을 빼면 폴란드, 미국과는 해볼만하다. 4강 진출이 목표다.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멤버들이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수원컵 대회 기간 K-리그가 열리지 않는 점을 감안해 프로팀 선수들이 출전할 수 있도록 각 구단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컵에 출전할 폴란드는 세계청소년대회 4강에 두 번 진출한 동유럽 강호로, U-19 유럽청소년대회 별기전에서 헤트릭을 작성한 다비드 안치크(레지아 바르샤바)가 경계 대상이다. 캄보디아는 아프리카 예선에서 코트디부아르, 콩고 등을 물리친 다크호스트 아랍에미

리트연합(UAE) 알-아인에서 스트라이커로 활약하는 오스만 잘라우가 간판 스타이며, 2005년 네덜란드 세계청소년대회 16강에 오른 칠레에는 남미 예선에서 5골을 뽑은 에스테반 리오스가 눈에 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영표 프리미어리그서 개인 통산 50경기 출전

이영표(30·토트넘 핫스퍼)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개인 통산 50번째 경기를 뛰었다. 토트넘은 후반 인저리타임 터진 결승골로 4-3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4연승을 달렸다. 이영표는 5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 엠파트 파크에서 열린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2006~2007 프리미어리그 29차전 원정경기에서 왼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 플타임을 소화했다.

위창수 톱 10 진입 실패 PGA 혼다클래식

2년만에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 복귀한 위창수(35·테일러메이드)가 혼다클래식에서 시즌 두번째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생애 첫 PGA 투어 우승까지 노렸던 위창수는 5일(이하 한국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가든스의 PGA내셔널리조트 챔피언코스(파70·7천48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일 마지막 라운드에서 3오버와 7타를 쳐 최종합계 이븐과 280타를 스코어카드에 적어내며 공동 13위에 머물렀다.



- 6일(화)
 - ▲06/07 NBA 〈마이애미: 아틀란타〉 (09:30·SBS스포츠)
 - ▲06/07 프로농구 〈모비스: KT&G〉 (18:50·SBS스포츠·Xports)
- 7일(수)
 - ▲06/07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2차전 〈리버풀: 바르셀로나〉(04:30·MBC ESPN)

당신이 축복입니다

You are the very blessing

2007. 3

세상을 아름답게 밝혀주는 행복지

월간 《당신이 축복입니다》

당신도 느껴보시지요? 봄날 땅 속을 풀고 솟아오르는 저 새싹처럼 당신의 가슴 속 어디선가 울려, 하고 솟구치는 푸른 기쁨 같은 것 같애요. 두근거림 같은 것 같애요. 봄이랑요, 그게 바로 희망의 증거라구요. 그 봄을 희망을, 그냥 지나가지 말고 가지세요, 새봄! 당신, 활짝 꽃피우세요. 마음을 선물해주는 월간 행복지 《당신이 축복입니다》

미나리처럼 상큼하고 꽃처럼 활짝 핀 이야기! 2007년 3월호

언제나 밝고 열정적이며 따뜻한 소실기 한수선 님의 이야기. 어머니가 살아있는 나무를 보며 품어 가진 이야기. 한 사람의 사랑과 고수 정영희 님의 사연. 사랑하는 남편의 사별 후 한 사람의 사랑과 고수 정영희 님의 사연. 사랑하는 남편의 사별 후 한 사람의 사랑과 고수 정영희 님의 사연. 사랑하는 남편의 사별 후 한 사람의 사랑과 고수 정영희 님의 사연.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부 1년 구독료는 두달차로 할인된 1만 원입니다. 구독신청 번호: 020236-0207 / 번호: 02026-0201 / 홈페이지: www.gitan.co.kr